

# “20회 우승? 만족 못해...장사 30회 등극이 목표”

한국 씨름 최초 금강장사 20회 등극 영암군민속씨름단 최정만

강릉단오대회서 정종진에 3-0승  
“씨름은 멘탈...잡는 순간 느껴져”  
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합

영암군민속씨름단 최정만이 강릉단오장사씨름 대회에서 3연패를 달성하며 한국 씨름 최초로 금강장사 20회 등극 기록을 이뤘다.

최정만은 지난 11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단오제 행사장 내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90kg이하) 결정전에서 정종진(울주군청)을 3-0으로 꺾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단오대회 황스토로피를 들어 올린 최정만은 “20회 금강장사 등극이 아직 실감이 안난다. 모든 경기가 잘 풀렸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속씨름 4대 메이저대회 중 하나인 단오대회에서 총 7회 장사등극을 하며 ‘단오 사나이’다운 힘을 보여준 그는 2022, 2023년 강릉단오대회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3연패를 기록했다.

최정만은 “단오가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이라고 하더라. 이게 나한테 좀 맞지 않나 싶다. 항상 이때는

컨디션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8강에서 최정만은 문운식(경기광주시청)을 첫판에서 잡채기로 가볍게 꺾고, 두 번째 판에서 안다리로 넘어뜨리며 2-0승을 거뒀다.

준결승에서 최정만은 이준형(MG새마을금고씨름단)을 상대로 첫판을 밀어치기로 여유롭게 마무리한 뒤, 두 번째 판에서 상대를 안다리로 넘어뜨리며 2-0으로 승리했다.

대망의 결정전(5판 3선승)에서 최정만은 노련함을 앞세워 정종진에게 3-0 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첫판과 두 번째 판을 모두 안다리 걸기로 승리한 그는, 세 번째 판에서 시작과 동시에 발다리에 이은 잡채기를 선보이며 순식간에 정종진을 쓰러뜨렸다.

최정만은 “씨름은 멘탈 싸움이다. 어깨만 맞대도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느껴진다”며 “정종진 장사를 상대로 이전에 몇 번 진 뒤에 연구를 많이 했다. 공격 패턴에 맞게 방어를 하고 빈틈을 놓치지 않고 역으로 들어갔다”고 결정전 당시를 설명했다.

최정만은 이번 대회로 금강장사 등극 20회를 달성했다.

그는 “영암군민속씨름단 주장으로서는, 또 선배로서 내가 앞에서 잘 해줘야 뒤가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 그래서 ‘책임감 있게해보자’라고 생각하고 그게 집중력을 더 많이 높였던 것 같다”며 “장사 30번 하는 게 목표다. 10번 남았다. 아직 만족 못 했다. 더 해야 한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또 “초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늘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딪히면 되더라”고 덧붙였다.

금강장사 등극이 확정된 뒤 최정만은 영암군민속씨름단 김기태 감독과의 뜨거운 포옹을 나눴다.

최정만은 자신을 꼭 끌어안은 김기태 감독을 멍겁이로 쓰러뜨리는 유쾌한 장면을 보이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그는 “원래 넘길 생각은 없었는데 감독님이 너무 잘 안기시더라. 그래서 ‘어 이거 넘기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씩 감독님도 잡자거나 넘기셨다. 나중에 들어보니 갈비뼈가 아프셨다고, 그래서 나를 넘기신 게 아님이 싫다”고 웃었다.

이어 최정만은 “영암군민속씨름단 서포터즈분들이 시합마다 오셔서 항상 저희를 챙겨주시고 응원해주신다.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또 늘 우리를 응원해주는 각 기관 회장님들과 주변분들 덕분에 선수들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금강장사 최정만이 11일 '위더스제약 2024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90kg이하) 결정전에서 정종진(울주군청)을 쓰러뜨리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 “장애·비장애인 원팀”...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개막

14~16일 1200여명 참가  
광주·전남 선수들 출격

광주·전남 선수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으로 하나 되는 '제3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에 출격한다.

이번 대축전은 오는 14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까지 3일간 서울 시내 10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전국 17개 시도 1200여명의 선수단이 수영·배드민턴·파크골프·휠체어럭비·좌식배구·파라트라이애슬론 등 총 10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친다.

광주에서는 4종목에 총 26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뽐낼 계획이다.

장애인 선수 8명과 비장애인 선수 9명으로 구

성된 광주시 선수단은 탁구·배드민턴·파크골프·스크린골프 종목에 출전한다.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땀 흘리며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진정한 통합”이라며 “모두가 스포츠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전남에서는 장애인 선수 15명과 비장애인 선수 10명을 포함한 42명의 선수단이 배드민턴·파크골프·좌식배구·트라이애슬론 4종목에 출전해 경기를 치른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장애인체육은 비장애인체육에 비해 17개 시도 참여율이 저조하고 환경도 열악한 편”이라며 “인프라를 확장해 장애인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대한탁구협회 감사패 수상

지역체육·한국탁구발전에 공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최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끝난 '제18회 전라남도지사배 생활체육탁구대회'에서 대한탁구협회(회장 유승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탁구협회 서민성 생활체육위원장 및 대한·전남탁구협회 임원진이 참석해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회 개최식에서 송진호 회장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개최, 한국탁구와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목포시탁구협회장 정찬형, 목포시체육회장 김성대도 함께 감사패를 받았다.

송진호 회장은 “대한탁구협회로부터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전남의 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왼쪽 세 번째)이 대한탁구협회 감사패를 수상 후 정찬형 목포시탁구협회장(왼쪽부터), 김성대 목포시체육회장, 서민성 대한탁구협회 생활체육위원장과 함께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 함평골프고 박진, 주니어 골프대회 우승

여자 고등·대학부 4언더파 기록

‘전남 골프 유망주’ 함평골프고 박진(2년·사진)이 전국 주니어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박진은 지난 11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CC에서 열린 ‘골프T 하이골프 주니어 골프투어대회’ 여자 고등·대학부 경기에서 4언더파로 정상에 올랐다.

강력한 드라이브와 정교한 퍼팅을 앞세운 박진은 2위 박예담(1언더파), 3위 서효주(1오버파)를 따돌리고 1위를 기록했다.

함평골프고 선배 전인지를 이을 재목으로 주목받는 박진은 “좋은 성적을 거두 기쁘다. 항상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지도해 주신 코치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기대감을 드릴 수 있게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는 골프존 스크린 온라인대회 2회, 오프라인대회 2회에 이어 태국에서 예정된 ‘통합



최강전까지 총 5차례 투어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2차 대회는 오는 10월 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움

# 문화산책

##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비베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